

접대 매너 <식사>

- 접대는 좋지만 과잉접대는 역효과!

2008.03.02

접대는 종종 있는 것이다. 일본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필요한 매너들을 여기서 소개한다.

□ 장소 및 접대 테마 결정

- 접대 상대의 직위에 따라 접대 장소를 결정한다.
 - 계장급: 이자카야
 - 과장급: 레스토랑
 - 부장급: 호텔이나 고급요리점 임원급: 요정(料亭) 등
- 미리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여 “생각보다 대우해 준다”고 느끼면 성공한 접대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너무 고급스러워도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접대를 하면 된다.
- 장소를 고를 때 직접 보러 가서 정한다.
 - 수용 인원수, 상대방의 취향, 교통편에 중점을 두고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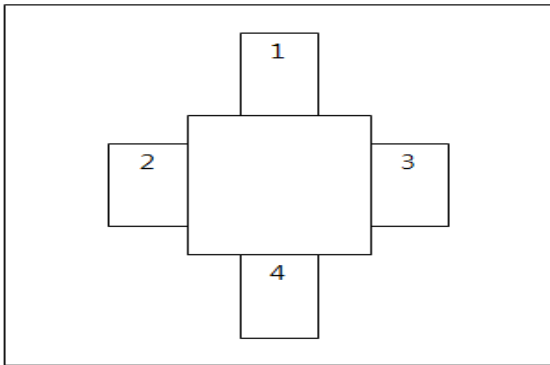
□ 초청 연락 및 준비

-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한다.
 - 상대방에게는 한 달 전 혹은 2주전에 연락하도록 한다. 또한 2, 3일 전에 사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 연락을 할 때는 FAX로 보내는 것이 좋다. 초대장에서는 날짜, 장소, 지도를 첨부하여 「当日お迎えに上がります」 혹은 「〇〇(わかりやすい

待ち合わせ場所) でお待ちしております」라고 적어놓으면 신뢰감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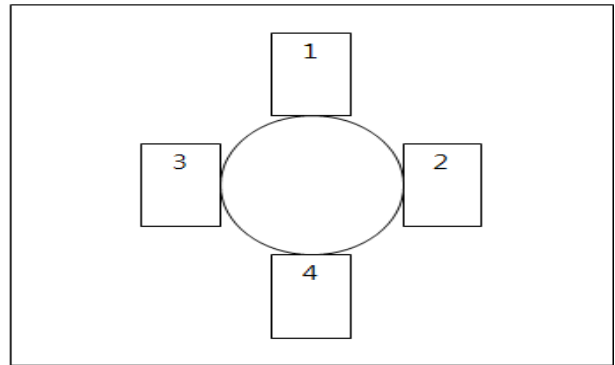
- 접대는 2차가 평가 대상이다. 물론 접대는 1차가 중요하지만 매너가 무너지기 쉬운 2차를 준비 철저히 해야지만 인상이 좋아진다.
- 앉는 자리를 미리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주 실례가 된다.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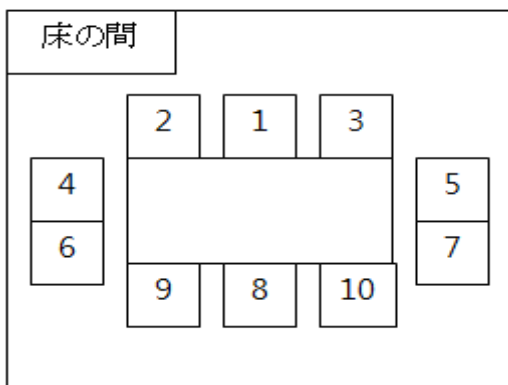
출입구

원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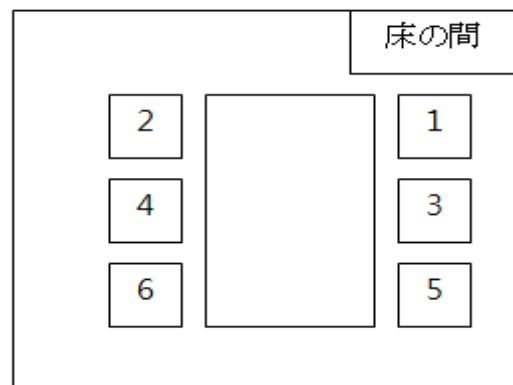


출입구

일식집(좌탁)



출입구



□ 식사

- 먹는 스타일이 깔끔해야 접대가 성공한다.
 - 일본 음식점에서는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 요리가 나오면 「どうぞ」라고 한마디 해야 한다.
 -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잔이 비지 않도록 3분의 1이 비면 음료를 따라준다.
 - 소리를 내고 음식을 먹지 말자.
 - 회식이 끝날 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결제는 미리 알지 못하게 끝내도록 한다.

□ 음주

- 양손을 컵에 받친다.
 - 한국식으로 손을 몸에 대고 술을 따르면 안 된다. 또한 술을 따를 때는 병맥주 브랜드가 위에 오도록 한다.
 - 일본 정종을 따를 때에는 80% 정도만 채운다. 받을 때는 양손으로 받는다.
- 2차에서도 반드시 매너는 지킨다. 흐트러지지 않아야 신뢰감을 얻는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 접대하는 사람이 쓰는 인사말

○ 시작 인사

「本日は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お忙しい
 ○○社△△部の皆様に少しでもくつろいでいただけたらと思ひまして、
 ささやかな席を設け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 마지막 인사

「宴もたけなわとなってきましたが、そろそろお時間となります。この
 あたりで締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思います」

□ 접대 받은 사람이 쓰는 인사말

○ 시작 인사

「本日はこのような席を設け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마지막 인사

「本日はすっかりごちそうになってしまい、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後とも〇〇社さんとはいいお仕事をさせていただけたらと考えております」